

전남 모 농협 운영 철부선은 ‘비리船’

자체 감사서 드러난 전 조합장·철부선 소장 비리 백태 보니

전남 한 농협에서 섬 주민과 관광객, 농·수산물 운송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255t급 철부선(鐵浮船)이 비리의 온상으로 전락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철부선 수리 시 특정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고 허위 수리비 견적서를 작성해 수익원의 예산을 집행하는가 하면 승선객 수를 조작해 수천 만원의 공금을 횡령하는 등 각종 비리 의혹이 자체 감사에서 속속 드러나고 있다. 비위로 빼돌려진 수익원은 조합원에게 환원해야 할 출자배당금 등의 손실을 가져오는 등 서민 조합원들의 피해로 이어졌다.

21일 전남지역 모 농협이 전 조합장 A씨와 철부선 소장 B씨 등 2명에 대해 최근 자체감사를 한 결과, A씨가 조합장 재직 당시인 지난 2012년 9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철부선 수리 기안문서에 견적 금액도 기재하지 않고 특정업체에 수리를 몰아준 정황이 포착됐다. 선박을 수리한 것처럼 허위로 견적서를

수리비 허위 견적서 꾸며

8억5000만원 부당 집행

“비용 10% 상납했다” 증언도

이용객 전산조작 돈 빼돌리고

철부선 헐값 매각 수익 손실

작성해 8억5000만원 상당의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내용도 확인됐다.

감사팀은 이 농협 철부선 소장으로서 있던 B씨가 지난 2013년 수차례에 걸쳐 수리업체로부터 현금 1000만원을 건네받았다는 해당 업체 담당자의 확인서도 확보했다.

철부선 수리 시 해당업체에서 제출한 견적서 전체비용의 10%를 상납했다는 수리업체 담당자의 증언도 나왔다.

감사팀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1년 8억8000만원에 인수한 철부선(수리비 1억

3000만원)을 3년 뒤 매각하는 과정에서 매수자가 제시한 1억5000만원보다 낮은 1억원에 팔아넘겨 9억원 가량의 손실을 입혔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들이 전산조작을 통해 철부선 여객·차량 운임료를 환불처리하는 방식으로 한 달 평균 3100만원을 빼돌렸다는 증거도 나왔다. 감사팀은 승선객 인적기록이 기재된 티켓발매 전산기록을 토대로 환불처리된 승선객들에게 직접 확인한 결과, 승선객 대다수는 환불처리를 받지 못했다고 답한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팀은 당시 업무담당자인 B씨가 84개월 간 근무한 점을 감안하면 약 10억원 가량의 공금을 횡령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들은 또 지난 2008년 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법인카드를 사용하면서 술집 또는 차량유류비 등으로 2억9000만원을 부당사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심지어 A씨가 조합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3년과 2014년엔 사전에 마을·양파 판매업자들과 사전계약을 한 뒤 원가 이하로 판매하

는 등 조합원들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증거도 나왔다.

감사팀은 이날 초 양파·마늘 판매업자 7명의 부당수에 대해 가압류조치했다. 해당 농협은 감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들을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해당 농협 관계자는 “감사결과 전 조합장 A씨 재직 당시인 지난 2014년 한 해 기준 17억4000만원에 달하는 손실이 있었다”면서 “현재 경영진이 이를 충당하고 있음에도 이들은 반성은 커녕 자신들이 재직 시절 각종 비리가 탄로날 것을 우려해 현 농협 경영진을 비방하고 음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 조합장 A씨는 “농협을 떠난 지 3년이 다 돼 간다. 어디서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내 입장에서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또 전 철부선 소장 B씨는 “현재 해당농협에 근무하지 않아서 잘 모르는 일”이라며 “제가 표를 끊은 것도 아닌데, 모른다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해수부 직원 폭행 ‘세월호 아빠’ 선처

광주지법 목포지원 “아픔 보듬어야” 선고 유예

세월호 선체 수색 현장에서 해양수산부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세월호 유가족 ‘성호 아빠’ 최경덕(47)씨에게 법원이 선고를 유예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2단독(장찬수 판사)은 “상해·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21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서 범행 정황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해 형 선고를 미뤘다가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최씨는 4·16가족협의회 선체기록단에 소속돼 세월호 관련 영상 기록 업무를 하고 있다.

최씨는 지난 4월 세월호가 거처된 목포신항 내 활영이 허용되지 않은 구역에서 촬영하다가 안전을 이유로 제지하는 해수부 직원을 폭행,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상해를 입혔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을 생각하면 죄질이 좋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며 “그러나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처벌 전력이 없다.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상해 정도가 무겁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최씨가 소중한 가족을 잃은 세월호 유가족인 점을 특별히 참작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일한 자식을 잃어 말로는 다 할 수 없는 아픔을 겪은 사람으로, 국가나 이 사회 전체가 사고 발생 경위 및 수습 과정에서 보여준 행태에 큰 실망과 불신을 갖던 중 이러한 감정이 겹쳐 결국 범행에 이르게 됐다”고 판시했다.

또 “엄한 처벌만이 능사는 아닐 것이요 그보다는 이 사회 공동체 전체가 피고인을 보듬어 스스로 그 아픔을 내려놓거나 그 아픔에서 헤어나도록 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등 이렇듯 일반 예방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더 낫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목포=김병관기자 dss6116@

“거룩한 뜻 잊겠습니다”...5·18 헬기사격 증언 조비오 신부 선종 1주기

김희중 대주교 집전 미사

조카 등 200여명 참석 추모

5·18 당시 계엄군의 헬기 기총 소사를 처음으로 증언하고 세상을 떠난 이후에도 헬기 사격 진실을 밝히고 있는 고(故) 조철현 비오 신부가 선종 1주기를 맞았다.

천주교광주대교구는 조비오 신부 선종 1주기를 맞아 21일 담양군 천주교공원묘원에서 추모 미사를 열었다.

조비오 신부는 1980년 5·18 당시 시민수습위원으로 참여해 광주시민들을 위해 헌신했고 5공 청문회 당시 계엄군이 시민들을 향해 헬기 기총 사격을 했다는 것을 최초로 증언했다.

특히 조 신부 사후 전두환 전 대통령은 회고록을 출간해 조 신부를 “성직자라는 말이 부채꼴처럼 퍼져있는 거지말쟁이”라고 비난했다가 지난 4월 유족에 의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됐다. 현재 검찰이 헬기 조종사 17명의 명단을 확보해 조사하고 있어 진실이 밝혀질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김희중 대주교의 집전으로 열린 미사에는 고인의 조카인 조영대 용봉동 주임신부와 신자, 교구사제 그리고 5·18 단체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김 대주교는 추모미사 강론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 연기처럼 사라지고 허망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철현 비오 몬시뇰을 언급하면서 “조 몬시뇰의 전체 인생은 크게 3가지로



헌화하는 김희중 대주교

김희중 대주교가 21일 담양군 천주교공원묘원에서 고(故) 조비오 신부 선종 1주기를 맞아 묘소에 헌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징지 수 있다”고 전제한 뒤 “하나의 사제로서 강직하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성모님께 의탁하고 삶을 살았고, 둘째는 1937년 광주에서 태어난 조 신부는 5·18 당시 큰 역할을 하는 등 민주화를 위해 헌신했다. 마지막으로 어느 누구도 관

심을 두지 않는 장애인들을 위해 생을 마감하는 순간까지 헌신했다”고 회고했다.

1937년 광주에서 태어난 조 신부는 1969년 사제품을 받았다. 1980년 5·18 당시 시민수습위원으로 나서 시민들 피해 최

소화를 위해 노력했다. 2006년 사목생활에서 은퇴한 뒤에는 소외된 이들을 위해 헌신했으며 2008년 고위 성직자 품위이자 교회의 명예 사제인 ‘몬시뇰’에 임명됐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수백억원대 투자금 불법 유치 40대 구속

투자업 허가를 받지 않고 수백억원대 규모의 투자금을 불법으로 모은 40대가 검찰에 구속됐다.

광주지법 형사2부(최승환 부장검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A(46)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9~2016년 11월까지 금융위원회 허가를 받지 않고 주식 투자로 고수익을 내주겠다고 360명으로부터 390억원의 투자금을 끌어모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투자회사는 원금보장이나 확정수익 등을 약속할 수 없고 투자업을 하려면 금융위원회 허가·등록을 받아야 한다.

A씨는 2012년부터 투자금을 주식 투자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해 자본이 대부분 잠식됐으며, 투자금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일부를 변제하는 ‘돌려막기’ 수법을 동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여수산단 염산가스 일부 누출

21일 오후 2시 30분께 여수시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모 석유화학 공장에서 염산 가스가 일부 누출됐다.

이날 사고로 현장에서 일하던 협력업체 직원 A(51)씨가 소량의 염산 가스를 흡입

해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의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스가 누출된 곳은 화학제품의 기초 원료를 생산하는 공장이다.

해당 업체는 공정을 중단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현영기자 young@kwangju.co.kr

담배 등 외상 구매 뒤 다른 마트서 현금화한 사기범 ‘딱 걸렸네’



○...순천·광양지역 마트들에서 상습적으로 외상거래 사기 행각을 벌인 30대가 쇠고랑.

○...21일 순천경찰에 따르면 일정한 직업이 없는 A(38)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 8월까지 1년 넘게 순천과 광양 일대 마트 12곳에서 타인의 명함과 위조한 운전면허증, 사업자 등록증을 제시한 뒤 “인근 사무실 직원인데 외상거래를 하

자”며 총 8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챙겨 달아났다는 것.

○...A씨는 주로 담배와 쓰레기 종량제 봉투 등을 외상 구매한 뒤 다른 마트에 반품하는 수법으로 현금화했는데, 경찰은 “타인의 명함과 운전면허증을 우연히 습득한 A씨가 자신의 사진을 면허증에 붙여 흑백으로 인쇄한 뒤 명함과 함께 제시하는 수법으로 마트 주인을 속였다”며 주의를 당부. /순천=김은종기자 ejkim@

NPL과 특수물건만이 답이다.

**부동산 투자!
오천경매와 함께 하면 성공합니다!**

최 선 규 H. 010-3605-5000